

제 1 회

국어 영역(문법)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결합하는 어근은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원래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말’과 ‘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마소’는 앞 어근인 ‘말’의 ‘ㄹ’이 탈락한 형태로 표기된 것이다. 그리고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에서 ‘쥐’와 ‘꼬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쥐꼬리’는 ‘매우 적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합성어가 되면서 의미가 변한 것이다. 형태 변화 유무와 의미 변화 유무를 기준으로 합성어를 분류하면 형태 변화가 있고 의미 변화도 있는 합성어, 형태 변화가 있지만 의미 변화는 없는 합성어, 형태 변화가 없지만 의미 변화는 있는 합성어, 형태 변화가 없고 의미 변화도 없는 합성어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때 의미가 변했다는 것은 반드시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똑같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지만 어떤 문장 속에서는 의미가 변하지 않고 쓰이고, 어떤 문장 속에서는 의미가 변하여 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명사의 소리가 변하거나 두 명사 사이에 어떠한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잇소리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첫째, ‘등’과 ‘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등불[등뿔]’과 같이 뒤 명사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아래’와 ‘이’의 형태가 변한 ‘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아랫니[아랜니]’와 같이 뒤 명사의 첫소리 [ㄱ, ㄴ] 앞에서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깨’와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깨잎[깼닙]’과 같이 뒤 명사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랫니’, ‘깼잎’에는 ‘등불’과 달리 앞 명사의 받침에 ‘ㄸ’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합성어 중에서 앞 명사의 받침이 없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그리고 순 우리말로만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만 표기한다. 이때 뒤 명사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거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 집 안팎을 청소해 놓자.
- ㉡ 그녀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밤낮 놀기만 한다.
- ㉢ 길거리를 걷다가 나의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쳤다.
- ㉣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날짐승은 의외로 박쥐라고 한다.
- ㉤ 예전과 많이 달라진 세상을 어제오늘 겪은 것은 아니다.

- ① ㉠에서 ‘안팎’은 어근의 형태 변화가 있고 의미 변화도 있는 합성어이다.
- ② ㉡에서 ‘밤낮’은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고 의미 변화도 없는 합성어이다.
- ③ ㉢에서 ‘첫사랑’은 어근의 형태 변화가 있지만 의미 변화는 없는 합성어이다.
- ④ ㉣에서 ‘날짐승’은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지만 의미 변화는 있는 합성어이다.
- ⑤ ㉤에서 ‘어제오늘’은 어근의 형태 변화가 없지만 의미 변화는 있는 합성어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우리 집 뒤뜰/뒹뜰에는 예스러운 장독대가 있다.
- ㉡ 내 친구는 눈매가 날카롭고 코달/כות달이 오뎅하다.
- ㉢ 이번 주 뒹풀이/뒹풀이 장소로는 어디가 좋을까요?
- ㉣ 우리는 지하 전제방/전젯방에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 ㉤ 이 노래의 노래말/노랫말은 무척 슬프면서 아름답다.

- ① ㉠ : 뒹말의 첫소리가 된소리인 [ㄸ]으로 발음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뒹뜰’로 표기해야겠군.
- ㉡ ㉡ : 결합하는 두 명사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כות달’로 표기해야겠군.
- ㉢ ㉢ : ‘뒹머리’, ‘뒹일’과 같이 ‘뒹’과 ‘풀이’는 순 우리말끼리만 결합하여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뒹풀이’로 표기해야겠군.
- ㉣ ㉣ : ‘젯방’, ‘아랫방’과 같이 ‘전제(傳賁)’와 ‘방(房)’은 뒤 명사의 첫소리가 변하여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전젯방’으로 표기해야겠군.
- ㉤ ㉤ : ‘혼잣말’, ‘존댓말’과 같이 ‘노래’와 ‘말’은 합성어가 되면서 [ㄴ]이 첨가되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므로 ‘노랫말’로 표기해야겠군.

13. <보기 1>를 참고할 때, <보기 2>의 문장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부정문은 부정 범위에 따라, 즉 무엇을 부정하려 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가령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는 문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부정 범위	의미
나	버스를 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버스	나는 무엇인가를 탔지만 그것은 ‘버스’가 아니다.
타다	나는 (버스 옆에 서 있었지만) 버스에 ‘탄’ 것은 아니다.

—<보기 2>—

그는 어제 철수를 만나지 않았다.

- ① ‘그는 어제 철수와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어제 철수를 만난 사람은 그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그가 철수를 만난 때는 어제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그가 어제 만난 사람은 철수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그가 어제 철수와 대면한 것은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14.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낱낱이 → [난나치]
 ㉡ 닭고서 → [닥꼬서]
 ㉢ 열여덟 → [열려덜]
 ㉣ 쌓지만 → [싸치만]
 ㉤ 값있는 → [가빈는]

- ① ㉠ : ‘낱낱이’는 두 번의 교체와 한 번의 축약이 일어난 후 [난나치]로 발음된다.
- ② ㉡ : ‘닭고서’는 한 번의 탈락과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난 후 [닥꼬서]로 발음된다.
- ③ ㉢ : ‘열여덟’은 한 번의 첨가와 한 번의 탈락이 일어난 후 [열려덜]로 발음된다.
- ④ ㉣ : ‘쌓지만’은 한 번의 교체와 한 번의 축약이 일어난 후 [싸치만]으로 발음된다.
- ⑤ ㉤ : ‘값있는’은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난 후 [가빈는]으로 발음된다.

15.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 ㉡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었다.
- ㉢ 체언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의’ 또는 ‘의’로 결정되었다.
- ㉣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 또는 ‘ㅣ’로 결정되었다.
- ㉤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관형절의 목적어로 쓰였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있었다.

—<보기 2>—

- ㉠ **느밋** 뜯 **거스디** 아니호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 ㉡ 주거미 날오더 내 호마 **주그니라**
[주검이 이르되 내가 벌써 죽었다.]
- ㉢ **거부비** 터리와 툇기 썰 곧거니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 같거니]
- ㉣ **부테** 命호샤 舍利弗을 **和尚이** 드외오
[부처가 명하시어 사리불을 화상이 되게 하고]
- ㉤ **前生애 지순** 罪로 이리 受苦호시니라
[전생애 지은 죄로 이리 수고하신 것이다.]

- ① ㉠의 ‘거스디’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주그니라’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느밋’과 ㉢의 ‘거부비’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부테’와 ‘和尚이’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前生애 지순’을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